"1990년대를 표현할 소품 찾기가 제일 어려웠다"며 고충을 토로한 '응답하라 1997' 제작진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 자체 제작을 통해 DDR, 강아지, 콤비콜라(왼쪽사진부터) 등을 구했다. 사진출처 | tvN 화면캡처

"'응답없는 소품 구하기' 가장 힘들었다"

오늘 종영 화제작 tvN '응답하라 1997' 뒷이야기

게임기 DDR, 중고 매매사이트서 구해
'샤킬오닐 가방' 찾다가 지쳐 직접 제작
"시즌2는 서태지시대" 가능성 언급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tvN '응답하라 1997'(이하 응답하라)이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종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18일 막을 내리는 드라마는 화제만큼 숱한 뒷이야기를 남겼다.

'응답하라'는 1990년대 말 부산 남녀 고교생들의 풋풋한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이에 따라 제작진을 가장 힘겹게 한 것은 당시 배경을 살린 소품 구하기였다. 10대들의 로맨스를 씨줄로, H.O.T와 젝스키스로 상징되는 10대들의 팬덤을 날줄 삼은 드라마는 1990년대 말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품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유물'과도 같은 당시의 문화적 코드의 소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DDR(모니터의 화살표를 보며 전후좌우 센서판을 밟는 게임기), PCS, '815콜라' 등이 대표적이다. 제작진은 갖은 어려움 끝에 DDR은 인터넷 중고매매 사이트를 통해 구매했다. 빡빡한 일정 속 택배만 기다리느라 안절부절 못했다고 한다.

끝내 구하지 못한 것은 강준희(호야)가 콜라텍 댄스경연대회에서 1등 상품으로 받은 샤킬 오닐 가방. 미국의 농구스타 샤킬 오닐이 덩크슛을 하는 이미지가 그려진 가방은 제작진이 비슷한 모양의 일반 가방에 이미지를 스티커로 붙여 제작했다. '815 콜라' 등 미니 사이즈의 캔 콜라는 제작했다. 대여한 소품도 있다. '삐삐'로 불린 무선호출기, PCS, 벽돌 크기 만한 휴대폰 등은 100여만 원을 들여 빌렸다. 극중 서울에서 전학 온 도학찬(은지원)이 사용했던 휴대폰은 이시언의 소장품이다.

드라마 속에서는 주인공 윤윤제(서인국)와 성시원(정은지)의 사랑의 첫 매개로 강아지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강아지는 제작진이 촬영을 위해 대여하는 바람에 분양 시기를 놓쳐 누군가가 구입해야만 했다. 현장에서 인기폭발이었던 만큼 서로 데려가려는 싸움(?) 속 조연출자가 선택됐다. 사실 서인국도 데려가고 싶었지만 이미 애완견을 키우고 있어 어렵게 포기했다는 후일담도 있다.

한편 '응답하라 1997'이 기획 초기 '응답하라 1994'였다는 것은 오해로 밝혀졌다. 신원호 PD는 "시즌2를 한다면 '1994를 해볼까'라는 데서 나온 얘기다. 서태지가 인기였던 그 시대는 또 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며 시즌2의 가능성을 넌지시 알렸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

"80일 남았다"…연예·광고계 '현빈앓이'

12월 전역…"흥행 키 잡아라" 물밑 섭외 치열

'현빈을 모셔라!'

디데이 80일. 현빈(사진)의 제대가 8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연예계와 광고계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3월 해병대에 자원입대한 현빈이 12월6일 전역하는 가운데 그를 먼저 잡기 위한 방송가와 영화계, 광고계의 물밑경쟁이 치열하다. 또한 최근 인기 드라마 KBS 2TV '넝쿨째 굴러온 당신'과 TV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현빈의 제대일이 소재로 등장한 것은, 현빈에 대한 연예계의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처럼 방송·광고계가 '현빈앓이'에 빠진 이유는 지난해 입대하기 전 출연한 드라마 '시크릿 가든'과 영화 '만추' 등으로 절정의 인기를 누리며 광고시장을 휩쓸면서 그는 현재 가장 '핫'한 스타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인기 절정에 입대해 그의 공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 중 하나다. 방송계 한 관계자는 "30대 초반의 톱스타 남자배우들의 기근 현상이 이어져 오고 있다"며 "현빈의 캐스팅 여부에 따라 내년 상반기 드라마의 흥행이 좌우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현빈은 '흥행의 키'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현빈 소속사 에이엠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17일 "현빈의 제대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다"면서 "올해 초부터 대형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섭외가 오고 있다. 하지만 차기작 등 연예계 복귀에 서두르지 않고, 여유를 갖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연예계 컴백에 시간의 여유를 충분히 두는 것은, 해병대 스타일의 짧은 머리를 예전처럼 다시 기르기 위한 것도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김종서·조장혁·고유진 록발라드 삼총사 뭉쳤다

내달 21일 '세 친구의…' 합동공연

콘서트로 뭉친 고유진 김종서 조장혁(왼쪽부터). 사진제공 | SH엔터테인먼트

90년대 가요계를 이끌었던 아름다운 고음의 세 로커가 뭉쳤다. 김종서와 조장혁, 고유진 등 '록발라드의 지존' 3인방이 그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10월21일(오후 4시·7시30분) 울산 달동 울산KBS홀에서 '세 친구의 통 큰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합동공연을 한다.

'통 큰 콘서트'란 제목은 '관객과 소통하고, 관객이 큰손이 된다'는 공연의 콘셉트에서 가져왔다. 실제로 이번 콘서트는 관객이 주인이 되는 콘서트로 마련된다.

우선, 가수들의 히트곡 중 관객들이 콘서트에서 듣고 싶은 노래를 직접 신청하고, 가수들은 관객의 신청곡을 부르는 '신개념 뮤직 콘서트'로 꾸며진다. 또한 관객들이 각 가수의 히트곡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노래를 공연 중 실시간 문자투표를 결정하고, 공연 중간 중간 '이야기 코너'를 마련해 '뮤직 토크 콘서트'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연을 주최하는 SH엔터테인먼트 측은 "120분 동안 펼쳐질 이번 콘서트를 통해 90년대 추억의 감성은 그대로 느낄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리암 니슨 "내 나이 60대지만 액션은 본능처럼 자연스러워"

아내 납치 영화 '테이큰2' 홍보차 내한

"한국의 심각한 범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범죄가 만연한 건 현실이다."

영화 '테이큰2' 홍보차 내한한 할리우드 스타 리암 니슨(사진)은 17일 서울 한남동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내에서 자주 벌어지는 각종 강력범죄에 대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10년 동안 유니세프 홍보대사로 일하며 "(한국의)인신매매 같은 범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실제 그 수치도 봤다"는 그는 "동유럽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들이다.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리암 니슨이 범죄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가 주연한 '테이큰2' 역시 가족이 납치당하는 상황을 그린 이야기이기 때문. 2008년 흥행에 성공한 1편에서 납치당한 딸을 구하려고 나선 아버지를 연기했던 그는 27일 개봉하는 2편에서는 아내가 범죄조직에 납치당한 상황에 처한다. 60대에 접어든 리암 니슨은 이번에도 강도 높은 액션 연기를 소화한다.

"액션 영화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내 건강이 알려줄 것 같다"는 그는 "하지만 매일 연습하고 있어서 액션은 본능처럼 자연스럽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테이큰' 1편의 성공으로 할리우드에서는 나를 액션 배우로 재조명했고 액션 시나리오도 많이 받고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영화에서 계속 '가족 납치'의 상황을 겪는데 따른 부담도 상당하다. 실제로 두 아들을 둔 그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에게 생기는 나쁜 일을 상상하는 건 쉽지 않다"고 촬영 과정을 돌이켰다.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연기자 손태영이 '한미수교 130주년 기념식' 참석차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고 있다. 도교욱 기자

연예뉴스 스테이션

'강남스타일' 뮤비, MTV 유럽 뮤직 어워드 후보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가 11월11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MTV 유럽 뮤직 어워드(EMA) 후보에 올랐다. 17일 MTV EMA 홈페이지에 따르면 싸이는 케이티 페리, 레이디 가가, M.I.A, 리아나와 함께 '베스트 비디오' 부문 수상 후보에 올랐다. MTV EMA 측은 싸이에 대해 "지난 10년간 한국의 스타였지만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와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 출연하며 현재 세계적인 센세이션이 됐다"고 소개했다. 싸이도 이날 트위터에 "유럽 MTV 시상식 후보에 올랐다네요. 비현실적임"이란 글을 올려 기쁨을 전했다.

MBC "내년 대장금2 제작할 것"

MBC는 17일 특보를 통해 "내년 '대장금2'를 제작할 예정"이라며 "김재철 사장이 최근 중국을 방문해 호남위성방송사(호남TV)와 '대장금2'의 방송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호남TV는 2005년 '대장금'을 중국에서 처음 방송한 회사로 '대장금2'의 선구매·선투자 의사를 밝혔다고 MBC는 전했다. 그러나 장근수 드라마본부장은 "'대장금2' 제작 시기는 미정이며 내년 제작은 우리의 희망사항"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또 다른 MBC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 연출과 캐스팅 모두 미정"이라고 말했다.

고 우종완 사망 이유 경찰·유족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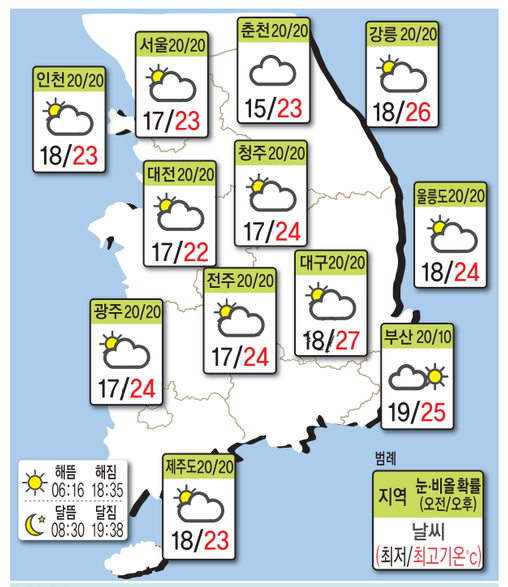
1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우종완(46)의 사망 이유를 두고 경찰과 유족이 다른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경찰이 부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고인의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자살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유족들은 그의 사인을 심장마비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종완 사망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유족들은 가까운 지인 외에는 조문을 받지 않는 등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있다. 17일 오후에는 가족들과 지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입관식이 치러졌다. 발인은 18일 오전 5시.

90년대 인기그룹 R.ef, 8년만에 컴백

90년대 인기그룹 R.ef가 25일 디지털 싱글 '잇츠 알이에프'(it's R.ef·사진)를 발표하고 8년 만에 컴백한다. 1995년 1집 '레이브 이펙트'로 데뷔해 '찬란한 사랑' '이별공식' '상심' '고요속의 외침' 등의 히트곡을 남기며, 90년대 최고의 남성 댄스그룹으로 자리매김 하던 R.ef는 1998년 공식 해체를 선언하고 2004년 재결합해 디지털 싱글 '사랑은 어려워'를 발매한 이후 8년 만에 다시 음반을 내게 됐다. 이번 싱글에는 '사랑을 모르냐봐 파트1'과 '사랑공식', 두 곡이 수록되어 있다.

오늘의 날씨

9월 18일 화요일 (음력 8월 3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c)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19일(수)	17/23	15/22	16/23	15/25	15/25	18/23
20일(목)	15/25	14/25	16/25	16/26	14/25	17/25
21일(금)	16/26	14/26	15/26	16/26	14/26	17/25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대근
인쇄인 최맹호
편집인 이성춘
편집국장 양성동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생활경제부 02 2020 1062
사진부 02 2020 1068